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
한미FTA 제8차 협상 개시 언론 브리핑

한국 서울

2007년 3월 8일

- 한미FTA 8차 협상이자 마지막 공식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.
- 이번이 한국에서 열리는 네 번째 공식 협상이므로, 각 계절마다 한 번씩 협상이 개최된 것입니다.
- 겨울처럼 FTA협상도 예상보다 약간 오래 지속되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.
-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봄이 오면 양국의 협상 노력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-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주 전 워싱턴D.C.에서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.
- 지난 협상 이후, 양국은 FTA와 관련하여 여러 번 고위급 접촉을 가졌습니다.

  -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.

  -어제 서울에 머무르던 폴슨 장관은 한국 고위 관리들과 면담했습니다.

  -이번 주 초에는 민(동석)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크라우더 수석 농업협상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농업 시장접근 및 위생·검역(SPS) 관련 이슈를 협의했습니다.

  -마지막으로, 이번 공식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제가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. 우리는 남아 있는 FTA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구상했습니다.
- 이 같은 고위급 협의는 성공적인 제8차 서울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모든 남아 있는 이슈를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물론 일부 이슈는 3월의 나머지 2주 동안 다루어질 것입니다.
- 분명 이번 마지막 공식협상이 가장 집중적인 라운드가 될 것입니다. 또한 양국 수석 대표와 분과장이 참석하는 정기 협의 등 협상 구조 역시 약간 달라질 것입니다.
- 그러므로 FTA협상에 있어서 결정적 기간이 될 이번 한 주를 낙관적인 마음과 의지, 집중력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. 이런 마음 가짐으로, 저는 이번 달 말까지 본 FTA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.